

‘시즌 11승’ 대기록 청신호… 안세영, 왕중왕전 첫 승

월드투어 파이널스 1차전서 와르다니에 2-1 승리

오늘 세계랭킹 9위 일본 도모카와 조별리그 2차전

단일 시즌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노리는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이 올해 마지막 대회 첫 편을 승리로 장식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7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의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세계랭킹 7위)를 2-1(21-16 8-21 21-8)로 제압했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고전했다.

호주 오픈 결승 이후 다시 만난 와르다니의 공세에 휘둘리며 4-7까지 끌려다녔다. 하지만 상대의 연속 범실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16-16까지 시소게임이 이어졌으나 안세영이 먼저 점수를 획득했다. 이후 침착하게 공격을 적중시키면서 연속 득점에 성공. 21-16으로 1게임을 쟁겼다.

2게임은 상대의 차지였다.

3-1로 앞서던 안세영은 5연속 실점으로 3-6 역전을 당했다. 주도권을 잡은 와르다니는 여유롭게 공격을 적중시키면서 포인트를 쌓았다. 10연속 득점에 성공한 와르다니를 상대로 안세영은 힘을 쓰지 못했고, 격차는 더욱 커졌다. 결국 추격에 실패하며 한자릿수 득점에 그친 안세영은 8-21로 2게임을 내줬다.

그러나 3게임의 양상은 전혀 달랐다.

집중력을 되찾은 안세영이 특유의 질식 수비로 상대를 묶는 동시에 빠른 공격으로 6점을 먼저 쓸어담았다. 계속해서 리드를 유지한 안세영은 12-1까지 점수 차를 벌리면서 사실상 승기를 가져왔다.

이후에도 안세영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해 상대를 뒤틀리며 추격의지를 꺾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준 안세영은 21-8로 월드투어 파이널스 조별리그 첫 승을 신고했다.

월드투어 파이널스는 한 해 동안 최고의 기량을 뽐낸 선수들이 모여 경쟁하는 배드민턴 왕중왕전 대회다. 남·여 단식, 남·여 복식, 혼합 복식 5개 종목에서 연간 월드투어 포인트 합산 상위 8명 또는 8개 조만 출전할 수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선수들은 4명씩 A조와 B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상위 2명이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자를 가린다.

A조에 속한 안세영은 암마구치 아카네(일본·세계 3위),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 미야자키 도모카(일본·세계 9위) 등과 조별 예선에서 경쟁한다.

안세영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지난 2019년 일본 남자 선수 모모타 켄토가 세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11승)과 타이를 이룬다. 여자 단독으로는 전인미답의 신기록이다.

앞서 안세영은 올 시즌 15개 국제대회에 출전해 10개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난달 2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BWF 월드투어 슈퍼 500 호주오픈’에서 정상을 차지. 여자 단식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시즌 10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기존 BWF 단일 시즌 여자단식 최다 우승 기록(9승) 역시 2023년 안세영 본인이 세웠던 기록으로, 올해 그 기록을 스스로 경신한 것이다.

올 시즌 안세영의 우승 행보는 압도적이다.

슈퍼 1000 시리즈 3개(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 슈퍼 750 시리즈 6개(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덴마크오픈·프랑스오픈·호주오픈). 슈퍼 300 대회 오를레앙 마스터스까지 총 10개의 트로피를 차지하며 여자 배드민턴 최강자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굳혔다.

이번 월드투어 파이널스에서 정상에 오르면 최다 11승 대기록에 이어 단일 시즌 최고 승률도 다시 쓴다.

안세영은 월드투어 파이널스를 포함해 이번 시즌 15개 대회에서 68경기를 치렀고, 그중 64경기를 이겨 승률 94.1%를 기록하고 있다.

안세영은 18일 오전에 열리는 2차전에서 도모카를 상대한다. 이 경기에서도 승리한다면 19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암마구치 아카네를 만날 예정이다. 아카네는 지난 8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텁파언이다. 안세영과의 통산 상대 전적은 15승 15패로 팽팽하다.

안세영은 17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의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를 2-1(21-16 8-21 21-8)로 제압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체육회, 지역 야구 생태계 발전 이끈다

‘2025 단체구기종목 야구 지역교류전’ 성황

전남형 엘리트·생활체육 연계 모델 등 강화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영암군 종합스포츠센터에서 ‘2025 단체구기종목 야구 지역교류전’을 개최했다.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회에는 새싹부, 유소년부, 주니어부 등 3개 종별에서 총 8개 클럽, 24개 팀, 3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전남지역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일반클럽 소속 학생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을

이뤘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남 유소년 야구의 저변 확대와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참가 선수들에게 종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쌓을 뜻깊은 기회가 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이 청소년 선수들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지역사회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단체구기종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역 교류와 스포츠 활성화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34차 이사회 개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장애인체육 선도’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제34차 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결과,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참가 결과, 광주장애인체육 제2기 발전위원회 현황 등을 보고하고, 각종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

항,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지속 가능한 장애인체육 실현’을 비전으로 공공·민간기업 장애인선수 채용 연계 확대, 2028 제4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준비, 자치구 중심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안전한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완비 등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2025년 한해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제2기 광주장애인체육 발전위원회 후원금 조성,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 순위 6위 달성, 장애인복지통합박람회 공동 개최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며 “2026년에도 제3기 광주장애인체육발전위원회 사업 등을 비롯한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장애인체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프리드온슨 연장 계약

“내년 더 많은 득점·승리 목표”

프로축구 광주FC가 ‘아이슬란드 폭격기’ 프리드온슨(32)과의 연장 계약에 성공했다.



광주는 아이슬란드 출신의 장신 스트라이커 프리드온슨과 계약을 연장하고 내년 시즌에도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프리드온슨은 아이슬란드 출신으로는 최초로 K리그에 입성한 선수다. 아이슬란드 구단 HK 코파보구르를 통해 프로 커리어를 시작해 스코틀랜드 명문 구단 셀틱에 입단할 만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각국 리그를 경험하며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196cm·85kg의 강력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프리드온슨은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공중볼 쌔움에 능하고 헤더에도 일가견이 있다. 원발잡이지만 오른발 사용 능력도 준수해 박스 안에서 침착한 마무리, 연계 등에 장점이 있는 타겟형 공격수다.

프리드온슨은 이번 시즌 리그 9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으며, 특히 전북현대와의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귀중한 동점골을 기록하며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가는 활약을 펼쳤다.

프리드온슨은 “광주에서 다시 한번 신뢰를 받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년에 더 많은 득점을 목표로 해 팀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